칼 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온 산하의 나무들은 털어내느라 바쁜데

가을이다! 그런데 예년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지난여름이 너무나 혹독했기 때문일까. 하지만 기온은 많이 하강했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노인들이나 환자들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가을은 축복과 슬픔을 함께 안고 가는 계절인가 보다. 아름다운 단풍과 시원함 그리고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면서도 죽음 또한 안겨주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야누스의 얼굴이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생물학적으로는 유기 조직의 존재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의학적으로는 맥박과 호흡 및 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일컫고.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죽음은 두려움만 주게 된다. 사후의 세계는 그저 무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때문에 죽음은 별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끔 해준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적절하게 생을 영위하다가 영혼만을 가지고 제2의 세계로 가는 것일까. 그렇다면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마치 여행하듯이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영원의 세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죽음은 또 다른 삶을 위한 생의 연장의 한 방법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심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유난히도 가을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죽음이 많은 편이다.

무더운 여름에서 추운 겨울로 가는 점이지대이기에 그럴까. 때문에 이승에서의 여행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제2의 세계에 가서 이승에서의 경험담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승에서의 하직은 슬픈 일이다. 마치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가족을 떠나 멀리 가게 되면 관련 가족들이 슬퍼하고 서운해하듯이. 하지만 이런 이별은 이승에서 다시 만날 확률이 너무나 높다.

그런데 죽음에 의한 이별은 이승에서의 또 다른 만남을 없게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인생의 갈무리를 잘해야 된다고 본다. 인간은 대체로 마지막 모습만을 기억하는 습성이 있다.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전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웠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모습이 추하게 되면 그 추한 모습만 뇌리에 각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노인을 비롯한 삶의 후반기로 넘어간 사람들은 우선 가족들과의 관계 정립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설령 여타의 이유로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용서와 화해를 도모해 보자.

그래야 피차간에 아름다운 향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의 일원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그들이 자신에게 끼쳤던 것이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모두 용서해주자. 산자와 사자(死者)가 싸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사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만약 미워하는 사자가 있다면 요즘 흔하디흔한 감 한 쪼가리와 소주 한 병이라도 들고서 묻힌 곳을 찾아가자. 가서 술 한 잔 권하면서 맺힌 것들을 풀어버리자. 사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온 산하의 나무들은 여름 내내 짊어진 잎들을 털어내느라 바쁘다. 또 다른 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혹시 무거운 짐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려놓자. 한결 몸이 가벼워지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돈 많은 사람들도, 필부필부도. 이제는 모두 내려놓자.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수확기 교통법규 준수로 농기계 사고 예방

매년 11월 가을철 수확기는 농민들이 1년여 동안 땀 흘린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다.

또한 가을 수확을 위한 각종 농기계가 도로를 자주 이동하는 시기로 농기계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차량 운전자와 농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농기계 대부분은 경운기, 트랙터, 농사용 지게차, 사발이로 도로 주행 시 차량과 농기계간 추돌로 차량 운전자와 농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농기계 운전자들 또한 안전의식 부재도 하나의 원인인 바, 이는 도로 주행 시 농기계의 정확한 조작 방법 미숙으로 인한 경운기, 트랙터 및 지게차의 전도, 끼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차량 운전자들은 농기계의 특성을 간과한 채 '피하겠지' 하면서 과속을 하거나,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따라서, 농기계 사용자인 농민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 또한 농기계의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확기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기적으로 수확기 농기계를 다루는 농민들은 반주로 막걸리를 마신 후 농기계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 바, 농기계 운전 중에는 절대로 음주운전은 삼가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농민들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로 더 이상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소중한 인명손실이 없길 바라며, 1년간 땀 흘린 결실인 풍성한 가을 수확을 기원해 본다.

고흥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곽현태

예방이 최고의 소방, 신고가 안전을 지킨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단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상구 폐쇄·차단, 소방시설 차단과 같은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 제도는 누구나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실질적 장치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 소방시설은 곧 생명의 통로다. 그러나 비상구가 막히거나 소화전이 불법으로 차단된 상태라면 화재 시 대피와 초기 대응이 불가능해져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된다. 신고포상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예방이 최고의 소방'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무엇보다 제도의 성패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빨라진다. 화재 없는 안전한 사회는 소방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높은 안전 제도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정재성

독자투고

불조심 강조의 달, 작은 관심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

어느덧 가을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겨울의 고요함이 스며드는 11월입니다.

공기는 점점 쌀쌀해지고 따뜻한 차 한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지만, 이 시기는 화기 사용이 많아져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먼저,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야 합니다.

날씨가 건조해진 만큼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꽁초 등 작은 불씨와 불꽃으로도 쉽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불 등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용 전기제품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실내 안전점검도 필수입니다.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등 난방용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울러, 초기 화재 진압에서 소화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소방차 한 대에 버금간다고 할 만큼 강력합니다. 실제로 적절한 위치에 비치된 소화기가 전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사업장 등 생활공간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평소 사용법을 익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사고를 막는 힘이 됩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화재 예방을 생활화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담양소방서 고서119안전센터 소방사 송의근

오늘의 운세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음력 9월 25일)

48년생 구관이 명관이다. 변화를 거부하자.60년생 꿈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준다.72년생 얻자 하는 부탁 측은함만 받아낸다.84년생 고민은 짧게 행동으로 옮겨가자.96년생 열심히 노력했던 목표가 보여진다.

49년생 경사가 겹치니 춤추고 노래하자.61년생 목적이 다른 만남 등 돌려 이별하자.73년생 상처는 행운의 액땜이 될 수 있다.85년생 어지럽던 마음의 평화가 다시 온다.97년생 늦게 오는 반응 거절임을 알아내자.

50년생 다시 와준 인연 품으로 안아 주자.62년생 짜릿한 반전의 주인공이 되어보자.74년생 거침없는 질주 앞만 보고 달려가자.86년생 충동적인 구매 낭비가 돼야 한다.98년생 낮이 밤으로 가는 축하를 받아보자.

51년생 진짜와 만나려면 발품을 팔아보자.63년생 이웃사촌이 최고 급한 불은 꺼준다.75년생 뜻은 가상하나 제자리걸음이다.87년생 슬픔이 지난 자리 희망이 다시 온다.99년생 자주 하는 실수 방법을 다시 하자.

52년생 들어서는 안 될 말, 귀를 씻어내자.64년생 술맛이 꿀맛인 호사를 누려보자.76년생 끌고 당기던 거래 도장이 찍혀진다.88년생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아내자.00년생 오래 묵은 앙금 화해를 서두르자.

53년생 까다로운 심사 옥석을 가려보자.65년생 건강하고 멋있는 땀을 흘려보자.77년생 주지 못하는 미안함 애써 외면하자.89년생 지름길은 없다, 과정에 충실하자.01년생 또 다른 영역으로 관심을 돌려보자.

54년생 욕심이 아닐까 되짚어봐야 한다.66년생 준비는 끝났다. 출발선에서 보자.78년생 우쭐했던 자만 반성문을 써야 한다.90년생 충분한 자신감 비싼 값을 받아내자.02년생 특별한 혜택을 감사하게 받아내자.

55년생 불쑥 온 손님도 격의 없이 친해지자.67년생 노래 한 자락으로 쉼표를 찍어내자.79년생 아픈 곳 찌르는 충고를 들어보자.91년생 쉽게 하는 허락 금방 후회가 된다.03년생 겉으로 초라하고 속으로 화려하자.

56년생 회유와 설득으로 반대를 넘어서자.68년생 야박한 평가에 고칠 점을 찾아내자.80년생 급하면 손해 기다리면 복이 온다.92년생 싱글벙글 웃음 기분이 날아간다.04년생 미운 소리 해봐야 본전도 못 건진다.

57년생 중요한 건 속도 바쁘게 움직이자.69년생 생각은 복잡해도 처음을 지켜내자.81년생 대신하는 자리 반짝반짝 빛나진다.93년생 눈으로 배운 공부 한계에 부딪힌다.05년생 하늘과 맞닿는 칭찬을 들어보자.

58년생 얼마나 좋은지 잣대로 재어보자.70년생 모든 게 역부족 기회를 다시 하자.82년생 유명세 탈 수 있는 제안을 들어보자.94년생 약속받지 못하는 고생은 사절이다.06년생 단단히 했던 결심 완성이 되어간다.

47년생 전성기 솜씨로 부러움을 받아내자.59년생 꽃보다 어여쁜 소식을 들어보자.71년생 혼자 하는 자랑 가치만 떨어진다.83년생 낭만과 현실의 차이점을 알아내자.95년생 약자 편에서는 정의감을 가져보자.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 스>(062)528-4566
회 장 실 (내선)210 편 집 국 교 2001
임 원 실 (내선)207 정 경 부 교 2003
총 무 국 교 2002 사 회 부 교 2004
광 고 국 교 2006 사 업 국 교 2007
인쇄 :(주)대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 · 1부700원